

통합돌봄 현장 이끌 핵심인재 500명 키운다!

- 전국 230개 시군구 통합돌봄 담당자 489명에게 통합돌봄 양성 교육 진행 -
- 통합돌봄 현장 경험과 노하우 나눌 전도사 역할 수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 현장에서 통합돌봄 경험과 노하우를 나눌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신규 전담 인력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주도형 교육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핵심인재는 신규 담당자가 통합돌봄 업무를 신속하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정부 내부에 통합돌봄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공유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청주 오스코에서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통합돌봄 담당자 489명이 신청하였다. 교육내용은 통합돌봄 가치와 핵심인재 역할 이해, 신규 직원을 교육할 수 있는 강의 역량과 현장 담당자를 지원할 수 있는 사례관리(케어매니지먼트) 코칭 역량 강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핵심인재를 활용하여 올해 하반기 신규 배치 예정인 통합돌봄 전담 인력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도 추진한다.

신규 전담인력 교육은 단순히 제도와 지침을 안내하는 기본교육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바로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으로 진행된다.

핵심인재는 각 지역의 신규 담당자가 지역의 돌봄 현황을 이해하고, 대상자에 대한 욕구조사와 관찰(모니터링),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과 토의형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각 지방정부는 지역별 신규 전담인력 채용 및 배치일정을 고려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며,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핵심인재가 원활히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발, 표준 강의교안 및 실습자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시군구와 읍면동 담당자의 업무수행 역량과 사명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핵심인재들이 지역 내 통합돌봄 전도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신규 담당자들의 업무 적응을 이끌어 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도 지역의 통합돌봄 역량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교육체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지역사회 통합돌봄 핵심인재 양성 교육 개요

담당 부서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사업과	책임자
		담당자

- (개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가치와 케어매니지먼트 노하우를 확산하는 통합돌봄 전도사 (강사, 코치, 슈퍼바이저 등) 양성
- (대상) 시군구 전담조직, 읍면동(또는 보건소) 담당자 중 통합돌봄 경험과 전문성이 탁월한 자 등 500여 명
- (추진일정) 9.29일~10.8일(5회, 회당 100명), 청주 오스코
 - * 1기: 9.29.(화), 2기: 9.30.(수), 3기: 10.1.(목), 4기: 10.7.(목), 5기: 10.8.(금)
- (내용) 핵심인재 역할, 강의기법 및 퍼실리테이팅 노하우 등

교과목	주요내용	방법	강사
신규 공무원 교육 내용	◦ 신규 배치 공무원 교육개요 및 지자체 역할 ◦ 표준교육 프로그램 안내 및 매뉴얼 소개 등	강의 질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핵심인재 역할과 책임	◦ 통합돌봄 가치, 핵심인재의 역할과 필요 ◦ 핵심인재를 통한 지자체 역량강화	강의 질의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강의역량 강화	◦ 강의기본 (발문법, 시간관리, 학습자 참여 유도 등) ◦ 지역사회 사례 반영 및 질의응답 노트 만들기 등	강의 토론	교수법 전문가 팀티칭
케어매니지먼트 코칭역량 강화	◦ 퍼실리테이팅 전략 이해하기 ◦ 개인별지원계획 코칭 실습 및 실습과제 만들기	강의 토론	케어매니지먼트 전문가 팀티칭